

濟州島 老人福祉에 관한 構圖

韓 昌 榮*

目 次

I. 序 說 II. 老人福祉構圖 III. 結 語

I. 序 說

제주도는 言必稱 〈長壽의 섬〉으로 알려지고 있거니와 濟州島民의 長壽性은 全國的으로도 드높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노인의 自立心 또한 그 類例를 찾아보기 드물게 강하다는 것 역시 널리 알려진 터이다. 필자는 제주도 노인문제를 연구하다보니 제주도 노인문제를 천작하면 할수록 寶物과 같은 것들이 발견된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제주도 당국에서는 2000年代를 겨냥하는 特定地域 綜合開發計劃을 樹立하고 그 部門別 基本計劃을 1983年 10月 31日까지 完成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部門別 基本計劃도 보는 角度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福祉增進이란 視角에서, 그리고 그것중에서도 특히 老人福祉

* 社會科學大學 行政學科 教授

增進이란 觀點에서 構圖의으로 構想해 보기로 한다. 그러므로 本稿는 老人福祉에 관한 理論的인 側面에서 다루기 보다는 차라리 제주도라는 特殊한 立地條件과 제주도 노인의 特質을 論據로 하여 筆者 나름대로의 所望을 皮력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Ⅱ. 老人福祉構圖

이 老人福祉構圖를 서술함에 있어서는 枚舉的 方式으로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제안하고자 한다.

1. 老人福祉會館이 필요하다.

무릇 老人이 組織的으로 活動하려면 求心的인 空間이 필요하다. 이러한 空間을 마련해 주는 建物로 老人福祉會館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 名稱이야 어떻든 老人들이 모여서 老人福祉增進을 위한 活動을 할 수 있는 建物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는 그와 같은 活動을 展開하는데 適當한 건물이 없다고 본다.

제주시내의 경우, 舊 知事官舍에서 大韓老人會 濟州道聯合會가 活動하고 있으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官舍는 낡은 건물이다. 따라서 이 건물을 가지 고서는 제주도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本格的인 活動을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老人福祉會館을 建立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老人福祉會館은 제주도 노인을 象徴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즉 老人福祉會館의 存在理由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을 것이다.

첫째로, 老人福祉會館은 제주도 노인을 象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老人福祉會館은 多目的 施設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多目的 機能을 發揮할 수 있어야 한다.¹⁾

1) 杉並・老後を良くする會, 老いへの挑戰(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982), pp.96 ~ 100, p.179.

세째로, 老人福祉會館은 老人觀光과 連繫性을 가져야 한다. 類類相從이라는 말과 같이 老人은 老人을 찾게 될 것이다. 제주도에 觀光次 찾아온 老人들이 찾아볼 수 있는 觀光對象으로서의 老人福祉會館을 想定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存在理由를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現代式 大型建物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女性會館은 마련되었는데 老人福祉會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마저도 없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老人福祉會館은 女性會館 못지 않게 重要的 建物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構想으로는 우선 제주 시내와 서귀포 시내에 각각 맘모스 建物인 老人福祉會館이 建立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邑面마다 老人福祉를 위한 多目的 施設이 建立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날 제주도는 文字 그대로 老人의 樂園이 될 것이며 이것도 觀光對象의 하나로 脚光을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아파트 團地에도 의무적으로 老人福祉를 위한 多目的 施設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老人休養團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Florida* 에는 이른바 *Sun City* 가 있어서 老人들만이 살 수 있는 生活空間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老人村 또는 老人市는 여러 가지 條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즉 첫째로, 老人村은 따뜻한 곳이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제주도이며 제주도내에서도 南濟州郡이 더 따뜻하다. 그러므로 이런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곳이 나라 안에서 제주도인 것이다.

둘째로, 老人村은 공기가 맑아야 한다. 제주도는 公害가 없는 곳이고 공기가 맑으므로 이런 조건도 충족하고 있다.

세째로, 老人村에는 相應하는 醫療施設을 갖추고 있거나 주변에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이 조건을 아직 충분히 具備했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제주도는 老人休養團地를 造成하는데 最適地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제주도에 天壽를 누리는 老人이 비교적 여러명이 있으므로 老

人村 안에 天壽村을 만들만 하다.

요즘 아파트團地를 만드는 붐이 형성되고 있거니와 장차는 老人村을 만들려는 붐이 우리 나라에도 일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Sun City* 등과 같은 老人團地는 好況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特定地域 綜合開發計劃의 構想 중에는 이른바 “*Destination Resort Area*”의 模型이 檢討되고 있거니와 老人休養團地야말로 이와 같은 모형을 具體化(implementation)하는 一環策이 될 것이다.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하여 *Communication*이 용이하게 되면 될수록 空間的 條件을 超克하게 마련이다. 예컨대, 年老한 社長이 老人休養團地에서 휴양하면서 컴퓨터를 活用하여 會社를 經營할 수 있게 된다. 즉 會社에 出勤하지 아니해도 집안에서 事務를 볼 수 있는 未來는 멀지 않다. 이렇게 되면 老人休養團地야말로 脚光을 받게 될 터이다.

3. 박거리 模型을 保存하고 活用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박거리 模型이야말로 老人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原初的 模型이요 오늘날의 老人問題를 根源的으로 再檢討할 수 있는 基盤(*Boden*)을 提示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 이에 대한 具體的인 說明과 理論的 論據는 拙著, 「濟州道老人論攷」로 미루거니와 필자는 박거리 模型에서 世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Nicholas Bosanquet*는 老人福祉施策上, 가정의 安樂이나 生活과 住宅面에서 老人들을 分離된 世界로 (*a seperate world*)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한다.³⁾

사실 西歐諸國의 老人福祉施策들은 일단 老人들을 젊은이와 空間的으로 分離하는 次元에서 이뤄진 것들이 많다. 그러나 박거리 模型에서는 老人問題를 『한 울타리』라는 空間에서 다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거리 模型이 濫存하고 있는 옛날 家屋을 잘 保全하여 研究의 對

2) 韓昌榮, 濟州道老人論攷(제주:韓一文化社, 1978), pp.164~168.

3) *Nicholas Bosanquet, A Future for Old Age* (London: Temple Smith Ltd., 1978), p.160.

象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나아가서 박거리 모델을 現代의 視角에서 再構成시킬 필요가 있다. 즉 옛날의 박거리 모델이 平面的인 것이라고 한다면 都市建築樣式에서는 垂直的인 것으로 開發할 때 現代에 알맞는 老人 Home 이 될 것이다.⁴⁾

그리고 이 박거리 모델은 老人의 自立心이 前提될 때 그 機能이 여실히 發揮되는 것이다. 제주도 노인의 自立心이 強하다는 것은 實證的으로도 證明되고 있다.⁵⁾ 이 제주도 노인의 自立心이야말로 自立的 福祉理論의 論據가 되는 터이다. 따라서 제주도 노인의 自立心도 앞으로 老人問題를 연구하는 세계의 학자의 關心之事가 되어갈 것이다. 요컨대, 박거리 모델과 老人의 自立心과는 密接不可分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4. 老人福祉 새마을運動을 活性化시키는 한편 全道的으로 擴散시킬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새마을 運動의 模範道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老人의 自立心이 作열하여 南濟州郡에서는 이른바 老人福祉 새마을運動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운동은 老人들 스스로가 福祉增進을 圖謀하는 것으로 그 實績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⁶⁾ 이 운동도 따지고 보면 제주도 노인의 自立心이 강한 점에서 연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운동이 活性化될 때 제주도 노인의 自立心은 보다 더 強化되는 것이며 그 自立心이 組織化되어 갈 것이다.

한편 老人福祉 새마을運動의 모델을 더 開發하여 다른 곳에서도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을 創出해 내는 作業도 看過할 수 없을 것이다.

4) 前掲書, p.170.

5) 한국일보, 1982.10.14.(6): 金兌玄 교수의 조사, 참조.

6) 제주신문, 1982.11.29.(8).

5. 『長壽의 섬』을 宣揚하기 위하여 長壽老人센터 또는 長壽老人研究所 등이 設立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長壽의 섬이라 함은 이미 여러 學者에 의하여 證明되었다.⁷⁾ 이러한 센터 또는 研究所를 上述한 老人福祉社會館 안에 設置하면 그 實效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980年 統計에 의하면 高齡者가 全國的으로 제일 많은 곳이 北濟州郡으로 나타나고 있어 全國的으로 長壽老人센터 또는 研究所를 設置하는 데는 제주도가 最適地임을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機關이 形成되어 그 機能을 發揮하게 된다면 많은 老年醫學者들이 來道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센터 또는 研究所와 관련하여 이른바 老人病院 또는 적게는 老人病科 등도 생겨야 할 것이다.

1983년 1월 5일 이른바 濟州社會福祉會가 設立되어 청소년과 老人을 위한 専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

6. 老人問題세미나 또는 會議을 제주도에서 開催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요즘 국제관광의 흐름에는 老人觀光과 이른바 *convention tour* 라는 脈絡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두가지 흐름을 結合시킨다면 그것은 老人問題에 관한 세미나 또는 會議이 된다는 것은 當然한 歸結이다.

요즘 제주도가 脚光을 받으면서 제주도 안에서 各種 全國的 또는 國際的 行事가 開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야흐로 제주도도 *convention tour*의 要衝地임을 立證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老人問題에 관한 全國的인 세미나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세미나와 같은 것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7) 石宙明, 濟州島의 生命調査書(서울:서울신문사, 1949), 崔玉子, 韓國濟州道民의 人口學的, 衛生學的인 研究(論文)참조.

8) 제주신문, 1983.1.6.(7).

努力은 바로 *convention tour*를 開發하는 一環策이 될 것이며 제주도의 老人像은 이른바 世界老年學界에 소개될 것이며 나아가서 그것은 老年學 (*Gerontology*)의 發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可能性은 세계적으로 老人問題가 심각해 지면 질수록 더 짙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만 해도 2000年代에 가장 難題로서 老人問題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想到할 때, 노인문제에 관한 研究는 더 활발해 질 것이다.

7. 老人觀光을 勸獎하고 宣傳할 필요가 있다.

巷間에서는 孝道觀光이라 하여 老人들이 觀光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老人觀光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停年退職을 한 老人들은 退職生活에 의한 餘暇를 갖게 마련이다. 이 餘暇야말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一種의 特權인 동시에 機會라고 볼 수 있다.⁹⁾

그리고 *Idris Williams*는 停年退職이야말로 退職前에 불가능 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生活의 時間을 제공해 준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⁰⁾

Unfortunately, retirement has come to be regarded as synonymous with old age. In many ways it is a pity that the word retirement is used at all in this context, because it implies a withdrawal from activity and reduced participation in the affairs of society. This of course is not so, and should not be the attitude adopted towards the act of giving up paid work. It is becoming increasingly recognised that there is a 'young' old age, usually between 65 and 75 years and an 'old' old age from 75 years onwards. For many people the period of 'young' old age can be the best and happiest time of life. Some will wish to continue working, albeit at a slower and more relaxed rate, whereas others may be glad to give up the responsibility of a job and concentrate on other interests, hobbies and pleasures. Many a man has considered retirement to be the most fulfilled part of his life and has wondered how he ever had the time to hold down a full-time job. Retirement then should be a very positive event and should be looked upon as a new adventure. It can be a time of life when,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earning a living, a person can spend time on activities which had previously been impossible.

9) 로버트·C·아추어리著 牧野拓司譯, 退職의 社會學(東京:東洋經濟新報社, 1979), p.158.

10) Idris Williams, *The Care of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London: Croom Helm, 1979), p.58.

一生 고생을 하다가 停年退職한 老人이 經濟問題가 허락하는 限 그가 갖고 있는 餘暇라는 特權 또는 機會를 最大限으로 享樂하려는 것은 人之常情이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老人觀光이라는 물결에 便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의 老人들에게 제주도 老人觀光의 適地임을 알리고 誘致하는 戰略이 필요하다.

예컨대, 세계적으로 붐을 형성하고 있는 老人學校 또는 老人大學에 제주도를 소개하는 “*Brochure*”를 配布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Brochure*의 內容에는 제주도는 老人의 *Paradise*라는 점을 강조함은 물론, 제주도의 老人像과 제주도의 老人福祉施策 등을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 老人像이야말로 제주도라는 寶庫 안에 있는 寶物 중의 보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를 소개하는 觀光 *Brochure*에도 제주도의 老人像을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 觀光 *Brochure*는 젊은이, 어른이나 노인할 것 없이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는 三神山의 不死藥에 얽힌 전설이 있었던 고장임을 세계 노인들에게 강조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8. 이른바 제주도를 老人教育의 示範道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제주도를 教育道라고 하는 것은 제주 도민의 教育熱이 드높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볼 수 있다. 필자의 調査에 의하면 제주도 노인들의 教育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따라서 제주도는 老人教育을 展開하는데 적합한 고장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도 各種 老人教育機關이 그 實效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停年退職한 敎職員으로 구성된 大韓三樂會 濟州道支部는 老人教育的인 面에서 重要的 潛在資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직을 支援하여 活性化시키는 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1) 韓昌榮, 上揭書, pp.137 ~ 138.

Lissy F. Jarvik 는 人間性教育의 復活을 豫見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¹²⁾

技術中心의 社會에서는 최근까지 젊은이의 教育에는 哲學을 주입하는 人間性教育은 不適合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장차에는 人間性教育의 復活이 再現될런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러한 教育을 받아서 成熟한 사람이 人生을 全體的으로 이해하고 스스로의 存在意味를 파악하며 또한 意味를 부여하려는 르네상스를 일으킬런지도 모른다.

이러한 人間性教育은 오랜 教育經綸을 가진 停年退職한 敎職員이러야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老人들이 老人福祉會館을 活用하여 教育을 실시하거나 靑少年教育에 參與하는 길을 마련한다면 좋은 結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 안에 있는 老人教育機關과 陸地部에 있는 老人教育機關 나아가서 外國에 있는 老人教育機關과의 姉妹結緣事業 같은 것도 展開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老人福祉會館이 마련되고 老人觀光團이 會館을 방문하게 되면, 그 機會를 利用하여 大韓三樂會 濟州道支部 會員들이 제주도에 관한 特講을 한다는 假想만 해도 신바람나는 일이다. 그 特講의 주된 內容은 제주도의 特性, 제주도 노인의 特質 그리고 이른바 耽羅精神 등이 되어야 할 것이고 老人觀光團에게 제주도의 老人像을 깊이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9. 民俗村에 老人 人力을 活用하는 方案을 講究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特定地域 綜合開發計劃을 立案하는 과정에서 大單位 民俗村을 만들려는 構想이 云論되고 있는 데 만일 그것이 具體化된다면, 거기에는 老人

12) L.E. ジャーヴィック編 井上勝也 監譯, 21世紀の老後(東京:保健同人社, 1981), p.213.

人力이 活用되어야 할 것이다. 民俗村에 老人이 活動하게 되면 우선 老人에게 일자리를 주게 되니 좋고, 그리고 民俗村에는 老人이 있어야 總體的으로 調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構想은 敬老思想을 高揚시키는 一環策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노인이 民俗村에서 일하면서 제주도의 俗談 등도 알려주면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李基文 編 《俗談辭典》을 分析해 본 결과 敬老思想을 잘 나타내 보이는 속담 두개가 있다.

제 부모 나쁘다고 내버리고 남의 부모 좋다고 내 부모라 할까.

제 부모를 위하려면 남의 부모를 위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 속담은 모두 제주도의 속담이다.¹³⁾ 이런 속담을, 民俗村에서 일하는 老人들이 방문객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단 속담뿐만이 아니라 다른 傳說, 巫俗 등도 文化傳承者인 老人에 의하여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10. 崇祖思想을 鼓吹시키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시 제주도에는 崇祖思想이 뿌리 깊게 터 잡고 있다. 그 예로써 도민은 자기의 入島先祖에 대한 공경심이 강하여 入島先祖의 墓所를 나름대로 聖域化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간과할 것이 아니라 崇祖思想鼓吹의 一環策은 물론, 국제적인 觀光時代를 展望하는 次元에서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며 그 聖域化를 勸獎하여야 한다는 見解¹⁴⁾가 있는데 필자도 同感이다. 이는 敬老思想을 高揚하는 일이기도 하다.

13) 李基文, 俗談辭典(서울:民衆書館, 1977), p.440.

14) 제주신문, 1982.10.26.(6): (提言) 濟州의 墳墓……독특한 民俗資源.

11. 天壽를 누리는 老人을 위한 여러가지 行事を 舉行할 필요가 있다.

古來人生七十稀라 했는 데 사람이 百歲 以上을 산다는 것은 難之難인 것이다. 그러므로 天壽를 누리는 老人을 위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간략하게 메모를 해 본다.

- 年末年始에 道伯, 市長, 郡守 등은 天壽老人을 찾아 볼 것
- 新年賀禮會 때 天壽老人을 모실 것
- 敬老週間 때 敬老行事的 프로그램에 天壽老人을 포함시킬 것
- 漢拏文化祭 때 〈天壽席〉을 마련하여 天壽老人을 모실 것

12. 海外에 살고 있는 제주도 출신의 老人에 대한 施策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海外에 살고 있는 제주도 출신의 老人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그러므로 일본에 살고 있는 제주도 노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故鄉를 찾는데 便宜를 제공하는 方案도 강구해 봐야 할 것이다.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고향을 찾고 싶어하고 鄉愁病에 걸리는 것이 人之常情인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도 上述한 老人休養園地는 필요할 것이다.

13. 제주신문 등 지방의 mass media에서 이른바 〈老人코너〉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ass media에서 특별히 『老人코너』를 마련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老人에 대한 關心事를 表明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 노인의 動靜을 오밀조밀하게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며 敬老思想을 鼓吹시킬 수 있고 제주도의 老人像

을 浮刻시키는 보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 안에서 特異한 老人像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貯蓄할아버지, 나무할아버지, 交通할아버지 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老人觀光 붐에 따라 제주도에 오는 老人 중에서도 〈老人코너〉에 등장시킬 만한 老人이 있을 것이다.

아름든 제주도 안의 *mass media*에서 『老人코너』를 마련하는 것은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14. 제주도를 老人福祉法 施行의 模範道로 만들 필요가 있다.

老人福祉法은 宣言的 訓示的 規定이 많다고 하여 그 實行性에 대하여 의문을 表明하는 見解¹⁵⁾가 없지 않으나 老人福祉法을 갖었다는 데 우선은 뜻이 있다고 본다.

老人福祉法의 內容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主要骨字〉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每年 5월에 敬老週間을 設定하여 敬老孝親의 思想을 昂揚하도록 함.(第 5條)
2. 老人의 福祉를 위한 相談 및 指導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市·郡·區에 老人福祉相談員을 둘 수 있도록 함.(第 6條)
3. 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 또는 市長·郡守(福祉實施機關)은 65세 이상의 老人으로서 身體·精神·環境·經濟的 理由로 居宅에서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者를 老人福祉施設에 入所시키거나 入所를 委託하도록 함.(第 7條)
4. 福祉實施機關은 65세 이상의 老人에 대하여 健康診斷 또는 保健教育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第 8條)

15) 法律新聞, 1982.11.29.(11): 朴在侃, 實定法効力 없는 老人福祉法.

5. 65 세 이상의 老人에 대하여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輸送施設이나 기타 公共施設 및 民間 서비스 事業의 利用料을 無料로 하거나 割引 優待할 수 있도록 함.(第 9 條)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에게 적합한 職種의 開發과 普及에 노력하도록 함.(第 11 條)

7.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住居에 적합한 機能 및 設備을 갖춘 住宅의 建設을 助長하도록 함.(第 12 條)

8. 老人福祉施設을 多樣化하여 養老施設・老人療養施設・有料養老施設 및 老人福祉센터 등으로 구분함.(第 13 條)

9.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福祉施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老人福祉施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第 14 條)

이러한 老人福祉法의 內容을 실천하는 데는 老人의 自立心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想到할 때, 제주도 노인은 自立心이 강하므로 老人福祉法이 시행되기에 적절한 곳이 제주도인 것이다.

문제는 行政當路者들이 老人福祉法의 內容을 實踐하고자 하려는 成就意志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가 老人福祉의 模範道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세계에서 老人觀光의 메카가 될 것이다. 東洋에서는 섬이라고 하면 輕視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西洋에서는 섬이라면 동경의 곳이며 자망의 대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섬인 제주도에 老人의 福祉施策이 잘 이뤄질 때, 섬이라는 魅力이 加算되어 乘數效果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제주도 老人福祉에 관한 限, 제주도 노인은 自立心이 강하므로 行政的 支援이 觸媒作用만 할 수 있는 정도라도 그 效率性은 事半功倍로 나타날 것이다. 老人福祉施策이 老人의 無條件 依托型에서는 그 限界性이 있게 마련이지만 老人의 自立心이 강한 自立型에서는 老人福祉施策은 波及效果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은 明明白白한 일이다.

아마도 行政的 支援事業 중에서 제주도 老人福祉를 위한 支援事業처럼 그 實效를 잘 나타내는 것도 드물 것이다.

III. 結 語

위에서 제주도 안에서 老人福祉를 具現하기 위한 構圖를 살펴봤거니와 그것을 간추리면, ① 老人福祉會館이 필요하다. ② 老人休養園地를 만들 필요가 있다. ③ 박거리 模型을 保存하고 活用할 필요가 있다. ④ 老人福祉새마을運動을 活性化시키는 한편 全道的으로 擴散시킬 필요가 있다. ⑤ <長壽의 섬>을 宣揚하기 위하여 長壽老人센터 또는 長壽老人研究所 등이 設立되어야 할 것이다. ⑥ 老人問題세미나 또는 會議를 제주도에서 開催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⑦ 老人觀光을 勸獎하고 宣傳할 필요가 있다. ⑧ 이른바 제주도를 老人教育의 示範道로 만들 필요가 있다. ⑨ 民俗村에 老人人力을 活用하는 方案을 講究할 필요가 있다. ⑩ 崇祖思想을 鼓吹시키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⑪ 天壽를 누리는 老人을 위한 여러 가지 行事を 舉行할 필요가 있다. ⑫ 海外에 살고 있는 제주도 출신의 老人에 대한 施策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⑬ 제주신문 등 지방의 *mass media*에서 이른바 <老人코너>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⑭ 제주도를 老人福祉法 施行의 模範道로 만들 필요가 있다 능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福祉施策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장차 到來할 2000年代 이전에 위에서 提示된 構圖들이 具體化되기를 希求한다.

필자는 *William A. Robson*의 福祉理論을 택하고 있는데 즉, 福祉社會를 구현함이 없이 福祉國家를 만들 수 없다.¹⁶⁾ 우리 나라의 경우 各道가 福祉를 增進하는 道로 발전할 때, 우리 나라는 文字 그대로 福祉國家를 建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를 福祉國家建設의 示範道로 育成發展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점을 아무리 強調하여도 지나치는 법은 없을 것이다.

16) *William A. Robson,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6), p.11.